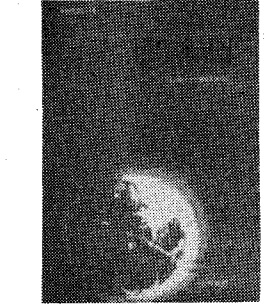


독자투고 박노해 작품 모음집 '민들레처럼'을 읽고

형상화된 민중의 생명력



◇ '박노해 석방대책위원회'가
읽은 '민들레처럼'

자신에게 단 한번 주어진 시절 / 자신이 아니면 꽃피울 수 없는
거대한 그 자리에 / 정직하게 피어
나 / 성실하게 피어나 기꺼이 밟히고
으깨지고 또 일어서며 / 피를 말리고
살을 말려 봄을 진군한다 / 가
마침내 바람 찬 허공중에 수천
수백의 꽃씨로 / 장렬하게 산화하
는 아 민들레 민들레 / 그 민들레
의 푸른으로 살아가겠습니다

—박노해의 시 '민들레처럼'에서

이 시구는 검찰조사를 받을 때
어느 한 사람이 건네준 민들레꽃
을 보고 쓴 글이다. 이 책의 제목
이다. 뜻밖 '민들레'의 하찮은
생명을 민중과 자신의 모습으
로 형상화한 듯 하다.

표시편이다.
84년 시집 '노동의 새벽'으로
출격을 던졌던 그는 이후 수배와
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에
구속되었다.
도피생활을 하면서 서울노동자
투쟁연합 중앙위원, 노동해방문
화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, 남한
사회주의노동자연맹 (이하 사노
맹) 활동을 했다.
2부 안에 들어 있는 '이 땅의
자식으로 태어나서'는 그의 과거

게 그를 노동자로 몰아낸 것이
며, '돈' (자본)의 의미를 깨닫게
했다. 선반·용접·자동차정비·
시내버스 운전사 등 갖가지 노동
을 다 거쳤다.
이 속에서 그는 자본가에게 억
압과 착취받는 노동자 자신을 발
견한다. 1부 속에 '돈이 아닌 사
람이 주인 되는 세상에 살고 싶
다'를 보면, 공기가 탁해 숨이
헉헉 마는 작업현장에 있는 큰
환풍기가 '코드 없는 장신구'였

노동을 통한 사상정립 과정 잘 나타나 민중 소유의 인간적 사회주의 건설 주장

중세시대로 되었고, 2부 '이 땅
의 자식으로 태어나서'와 6부
'민들레 그 푸른으로'는 가족에
게 보내는 서간문과 자신의 과거
를 드러내는 글이고, 3부 '인간
해방을 향한 단 하나뿐인 길이기
에'와 4부 '투쟁 속에 희망이 있
습니다'는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
으로 인간해방과 투쟁을 부르짖
은 글이고, 5부 '시, 현실에 부
러내민 혁명의 꽃'은 자신의 대

가 솔직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으
로 들어 있다. 전남함평 빈농
의 아들로 태어난 기령의 아버지
는 여순반란사건 시 주동급 빨치
산투쟁을 했다. 아버지에 대한
부정적 인식의 갈등으로 그는 화
창시절에 이미 사상의 갈등과 모
순에 고심했다.
또한 그는 가난때문에 '대학'
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'돈'
을 벌어야 했다. 그것은 아주 쉽

다고 한다.
환풍기 (노동자의 숨통)를 돌리
기 위해 노동자 연대의 힘으로
파업을 해서 '환풍기 가동'을 쟁
취했다. 이것으로 노동자의 현실
자각과 연대와 파업이 노동자의
'힘'인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.
바로 이러한 '힘'이 그로 하여
금 시집 '노동의 새벽'을 일깨워
준다. 2주일에 다 썼다는 그 시
집은 '노동자문화'를 우리 사
회에서 가능하게 한다.
또한 '박노해현상'이란 낱

사회현실 인식의 시간

4년전 등용문을 들어섰을 때 나는
무척이나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.
고등학교시절 나에게 대학은 거대한
그 무엇이었다. 그곳만 가면 모든 것
이 저절로 이뤄지리라는 잘못된 기대
가 하루 하루의 대학생활을 지루하고
따분하고 시간낭비라 생각하게 하였
다. 대학생활이란 것이 누구 한 사람
이래라 저래라하는 이 없고 철저한 자
율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
다.

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학의
실체를 어렵게나마 알게되면서 나는
과연 이 화려한(?) 캠퍼스에서 무엇을
찾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다.

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어떻게 학생
의 신분으로 감히 현 정부를 비판하
며, 교수님들을 어용이라 탄핵하고,
전경과 맞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휘
두르는 폭력을 서슴치 않는 것이었
다.

그러나 점차 그들을 이해하면서
나는 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결코 학
문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시대의 부름
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
었다.

여하튼 지난 4년간은 이제껏 살아

젊은이다운 패기로 학업과
현실 참여에 임하기를

은 내 삶의 기본 틀을 뒤엎어 버렸고,
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커다란 영향을
끼칠 것이다. 대학은 내게 너무나 많은
정신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.

돌이켜보면 대학생활 중 가장 후회
가 되는 것은 화과공부의 소홀이었다.

흔히들 말하는 학문의 정당이나 상
아입니하는 대학의 가장 큰 기능은
역시 진리의 탐구라 하겠다.

그러나 정작 시험기간 몇일 앞두고
친구 노트를 훑어 보며 복사해가며 버라치기
로 얼렁뚱땅 학점을 얻어냈던 기억이
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스러울수 없다.

이 문제는 비단 내 경우에만 해당되
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.

책상과 벽에 새까맣게 쓰여진 칸닝
문구는 대학생들이 갖는 자존심과는 무
관하게 몇몇이 존재하는 것들이다.

졸업을 하는 마당에 이제 학교에 남
아있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
대학인만이 가질수 있는 패기와 정의로
움으로 학업에, 그리고 현실참여에 임
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다.

서 계 영
(철학·4)



▲ 영화 '단한 교문을 열며'의 마지막 장면

지난 17일 영화제작소 '장산꽃
매'는 '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'
사무실에서 영화 '단한 교문을
열며'에 대한 제작중지탄압경의
와 그 대처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
을 가졌다.

88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
로 한 영화 '오! 꿈의 나라' 제
작을 위해 대학생 영화인들이 모
여 결성한 장산꽃매는 89년 중순
16mm기록영화 '87에서 89로 전진
하는 노동자'에 이어 90년에는
젊은 이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
갈등을 그린 '파업전야'를 촬영
하는 등 '한국민족예술인'에 천
착한 진솔한 영화를 만들어 오
고 있다.

'단한 교문을 열며'는 '파업전
야' 상영으로 인한 수입금 전액
을 환원하는 입장에서 90년 8월
작업에 착수, 92년 1월17일에 편
집을 완료하여 현재 녹음과 프린

트현상만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.
'단한 교문을 열며'는 현 고교
교육에서 각각의 결함을 안고, 취
업반으로 들어온 학생들과 전교
조 기입교사, 교직원집무의 학생

들을 통하여 본 학교와의 대립구
도를 그려 현교육의 모순점을 지
적하고 있다.

그러나 문화부는 지난 1월 14
일부터 제작중지 명령을 이유로
녹음실과 현상소에 압력을 가하
여 현상 및 지난 1월 22일로 예
정되었던 녹음일정을 취소하도록
중용하였다. 이를 녹음실측에서
거부하자 세무사찰 및 법기관에
서 다시 연락이 갈것이라고 협박

한채 '장산꽃매'는 오는 25일
오후 4시와 7시에 '단한 교문을
열며'의 필름만을 영사하고, 출
연배우들이 직접 대사를 하는 한
편 효과 및 음악 역시 즉석에서
들려주는 국내 최초의 영상극을
계획하고 있다. 또한 작업방해가
계속될 경우 전국 순회공연을 가
질 예정이다.

'단한 교문을 열며'에 대한 문
화부의 사전 제작중지 탄압은 영

시문에 현상 입선작

호떡 아줌마

능청스럽게 높아만가는 빌딩
햇살을 조금씩 갈아 먹습니다
그 그늘 속에 살아가는 호떡 아줌마

피부를 떨게 하는 바람은
어지럽게 쓰레기를 쏘아가고
자꾸자꾸 모여드는 몸들
따뜻한 호떡에 녹입니다

열구공탄 숨구멍에 달구어진
한 덩이 호떡처럼
좁은 수레 위로 푸근하게 피어오르는 삶의 의욕

팔라가는 호떡은
밤 늦게 돌아오는 막내동생에게
비싼 동복금으로 화요
가족의 소중한 밥줄의 무게로 됩니다

달려진 어깨와 창안 피로를 툭툭 털며
든든하게 밀어주는 남편과 이른 아침에 솟아
오르는 해를 이고 힘차게 살아가야 할 자리를
찾아 잡니다

김 중 현
<국문·2>

문 화 단 신

여인극장 '춤추는 꽃벌'

극단 '여인극장'은 민족의 숙원
인 통일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많은

진보적 영화 제작 중지 압력

문화초점 '장산꽃매' 사태의 진상

하여 녹음을 포기하게 만들어 한
편의 소중한 영화의 탄생을 막고
있다.

'장산꽃매'는 지난 17일 유래
없는 영화사건 중지 탄압에 대해
'문화부의 이러한 탄압행위는 헌
법에 명시된 예술 창작 표현의
자유를 침해하는 탈법적 행위'라
며, 제작중지탄압을 즉각 중단할
것과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질의
서를 문화부에 전달했다.

이러한 영화제작에 대한 사전
원천봉쇄는 그 동안 한국영화의
진보적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
을 해온 실험적
소형영화 제작
에 찬물을 끼얹
는 행위로 보여
진다.

문화부가 작
년에 이어 문화진흥을 위해 '음
악의 해'를 선정했지만 이미 박
제화된 관제문화가 더 이상 건전
한 민중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
지 못하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
이다.

앞으로 진정한 민중민족문화
건설을 위한 영화운동계의 계속
적인 연대활동이 예상된다.

(김일형 記者)

극단 '미레' 공연

잠시동안의 휴식기를 가지며 내
실을 다져온 극단 '미레'는 올해
첫 작품으로 지난 89년 초연을 가
진 '사랑뚱문' (이상화작품·연
출)을 명동 엘칸토 예술극장에서
상연한다.

황금만능과 물질만능 그리고 참
나적인 패라추기로 변모해 가는
오늘날 우리젊은이들의 배틀어진
애정관과 윤리관을 적나라하게 폭
로하고 있는 마당극 형식의 이 극
은 매일 오후 4시와 7시에 상연되
며 젊은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진
솔한 반성의 기회를 줄 것이다.

배우극장 '붉은방' 상연

극단 '배우극장'은 지난 12일
부터 오는 3월15일까지 제12회 이
상문학상 수상작 '붉은방'을 세미
예술극장에서 영률 공연한다.

'붉은방'은 밀실수사와 교묘한
자행되는 현실속에서 종교와 현실
의 괴리를 표현하면서 이시대의
진실은 극장의 화려한 쇼에 가려
져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
회고발적 작품이며 오후 4시30분
과 7시30분에 두차례 상연된다.

사리돈 이름에 'A'를 더했습니다.

이제부터,
사리돈-에이입니다.
새로 나온
사리돈-에이

사리돈 30년-사리돈은 강산이 세 번이나
변해오는 동안 수많은 분들의 두통, 치통,
생리통을 풀어 드리면서, 그리고 순한 진통제가
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.
이제, 사리돈이 다른 성분의 사리돈- 에이로
새로 나왔습니다.
사리돈- 에이.
이제부터, 새로 나온 사리돈- 에이입니다.

반드시 의사, 약사와 상의하고, "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"을
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Saridon-A

두통, 치통, 생리통에
사리돈-에이

■사리돈-에이의 효능·효과
●두통, 치통, 발치후 통증, 귀의 통증, 관상동맥,
신경통, 근육통, 건통, 타박통, 골절통, 요통,
외상통의 진통, 연착통.
●오한, 발열 시의 해열.

●표준소매가격: 10장에 1,100원 ●원제수입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7-20 역삼빌딩 대표전화: 561-7200 FAX: 561-7201

Roche 주식회사 한국로슈